

# 출판인은 책으로 말한다

反戰평화주의자로 잘 알려진 철학자 러셀이 2차대전 당시 영국정부가 발행한 전쟁채권을 사탕다가 종전 후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어느 글에선가 읽고 러셀과 러셀의 철학에 심한 배반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스스로 뱀아낸 말대로 처신하는 일의 어려움을 물론 모르는 바 아니지만, 러셀과 같은 지성에게조차 언행일치에 대한 기대란 결코 당연한 것일 수 없다는 사실의 발견에 꽤나 쓸쓸해 했던 기억이 있다.

얼마전, 그 대표성이나 회원사의 규모로 보아 출판계의 양대기구나 할 만한 대한출판협회와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정기총회가 치뤄졌다. 이들 총회를 지켜보면서, 그다지 유쾌할 것도 없는

러셀의 예가 문득 생각난 것은 왜일까?  
아마 거기 차려졌던 '말의 盛饌'때문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마다 공자님 말씀"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좋은 소리는 다 쏟아져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곧바로 그 말들의 정당성에 대한 묘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른바 '총회꾼'을 비롯한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도 대다수 출판인들의 말은 다른 어느 분야 종사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 '일부'에 있으며, 그 일부의 목청이 항상 크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출판인의 언행일치"라 할 때 '行'에 해당하는

것이 '출판'임을 감안하면, 일년내내 제대로 된 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출판인의 말이 갖는 설득력은 이미 그 시작부터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출판계를 보면, 한 출판인이 갖는 위상이랄까 영향력이랄까 하는 것들이 그가 얼마나 좋은 책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듯해 씁쓸하다. 출판인이 하는 말의 무게는 그의 출판사가 갖는 이미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일반독자들이 품고 있는 상식인데도 말이다.

물론 우리 출판문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갑론을박과 시시비비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다. 다만 거기 동원된 말들의 설득력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책'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이 출판계를 지켜보는 주위의 소박한 기대이다.

출판인은 책으로 말한다.

—강철주 부장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3월10일까지 「출판저널」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제58호(3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사에서 펴낸 「엘리트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출제했습니다. 다음의 가로 및 세로열쇠를 읽고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 가로열쇠

- ②지역감정을 유발시켰다고 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특절고」의 작가
- ③채만식의 장편, 고리대금업자 윤직원이 주인공. ⑥김동리의 대표 장편, '하늘'의 예수와 '땅'의 사반의 대립을 그렸다. ⑨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의 여주인공 ⑩김동리의 대표 단편. 후에 「을화」로 개작되기도.
- ⑪전영택의 단편. 재물이 생기는 그릇이라는 뜻. ⑭조지훈·박두진·박목월의 합동시집 ⑮조해일의 베스트셀러소설. 주인공은 이화 ⑰염상섭의 작품으로 원제는 「묘지」. 식민

지시대의 한국현실을 '무덤'으로 파악했다. ⑱공사관 노부자의 삶을 그린 황석영의 중편.

### 세로열쇠

- ①황순원의 단편집. 1952년판. ②김억이 엮은 근대문학 최초의 번역시집 ④'세태소설'의 선편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는 박태원의 작품. ⑤1934년 간행된 황순원의 첫시집 ⑦이해조의 신소설. 1910년작. ⑧심훈의 농촌계몽소설. ⑩님 웨일스가 쓴

한국혁명가 金山의 전기. ⑬60년대 한국소설의 한 성과로 꼽히는 김승옥의 작품. 안개로 유명하다. ⑬서기원의 장편. 중국 秦나라 趙高의 고사 '指鹿爲馬'와 관계있다. ⑮1959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손창섭의 작품. ⑰엘레지. 상여를 메고 갈 때 하는 노래. ⑱남정현의 작품. 필화사건으로도 유명하다.

### 제52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⑫	⑬			
						⑭	
							⑮
					⑯		
	⑰				⑱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4호(1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46통, 이중 정답자는 12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국	순	전	김	수	장	박	순
자	택		한	지			
대	리		가	국	원	류	
동	국	여	지	승	람		
야	민	평	해	동	가	요	
승	락	계				시	
	이			백	리		
적	벽	가	제	왕	운	기	해
토		주	소				가
마	속	역	옹	패	설	초	사

### 당첨자

- 권정희(서울 노원구 창동 주공아파트 1907동 1598호)
- 신억기(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14리 동원아파트 가동 501호)
- 한상민(충북 청주시 수곡동 모란아파트 3동 202호)
- 신근식(대구직할시 달서구 본리동 우방아카시아 203동 108호)
- 이창식(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1가 117-6)

# 출판저널

동권 제56호/1990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鐵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煥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潘慶煥 李權雨 鄭素淵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金惠敏

업무차장—尹東鎭  
업무·광고—崔悅源 李義天 崔炳天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대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식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鏞廈 安秉永 安輝濤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深 李康淑 李瑞燕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鐵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鄭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지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료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